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Modern Typography of Japanese Edition in Taiwan

曹 炯 鎮 (Cho, Hyung Jin)*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
| 2.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印本の | 印出技術 |
| 概要 | 6.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
| 3.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 印刷技術 |
| 製作技術 | 7. 結 論 |
| 4.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 <참고문헌> |
| 組版技術 | |

<초 록>

(1) 臺灣 소장 일본 근세활자본은 11종이다.

(2) 活字의 재질은 모두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대부분이 장체로서 조각 기술의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단정한 편이다. 필서체 1종은 필의를 표현하고 있다. 문자의 미감은 다양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하다. 뿔어진 문자와 농담의 차이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정을 간과한 듯 오자가 많은 판본이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묵색 농담의 차이가 다소 보이고, 墨汁의 번짐·잡묵·이중 인출 등이 없기도 하고 제법 보이는 경우도 있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印刷技術 수준은 중상급에 해당한다.

要語: 臺灣 소장, 일본 근세활자, 준고활자, 현대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4년 5월 24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2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1) There are eleven editions of Japanese modern type collected in Taiwan.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all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is mostly craftsman calligraphic style. The carving technique is in small variance and mostly clean. One edition is script style and it reflects the writing style. The character touch demonstrates a wide variance in the quality. Its technical level is middle-upper grade.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There is a wide variance in character skewedness and ink color thickness. Some editions show many typos, possibly skipping correction process. The technical level is middle-upper grade.

(4) The brushing technique shows some inconsistency in ink color thickness. There is a great variance in chinese ink spreads, inadvertent marks of ink on the paper, and double printing from no incidence to many incidences. The technical level is middle-middle grade.

(5) The typography level is middle-upper grade.

Key words: collection in Taiwan, Japanese modern type, semi-early type, contemporar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1. 緒 論

일본의 서지학계는 자국의 활자인쇄발달사 상에 나타난 활자본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古活字本으로 1590년(天正 18)부터 1651년(慶安 4)까지의 62년간에 활자로 인쇄한 판본을 지칭한다. 둘째는 準古活字本으로 1652년(承應 元年)부터 1735년(享保 20)까지의 84년간에 활자로 인쇄한 판본을 지칭한다. 셋째는 近世活字本으로 準古活字本 이후 서양에서 근대의 연활자가 수입되던 개화기 이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활자로 인쇄한 판본을 지칭한다.

일본의 근세활자본은 일본 이외에 한국이나 중국 본토에는 거의 소장되어 있지 않음에 비하여,¹⁾ 중화민국 타이완 지역에는 적지 않은 수량이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근세활자에 대한 인쇄기술을 완전하게 분석하기 위하여는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일본 근세활자본의 소장처와 판본을 망라하여 검색한 후, 각각의 소장처를 직접 방문하여 직관법으로 판본을 일일이 조사 분석하여 종합하였다. 판본을 실사한 결과 파악된 판종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 문헌도 참고하였다.

그러나 전통 한지에 인쇄한 판본일지라도 서양의 신식 연활자로 인쇄한 판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헌을 통하여 일본의 근세활자본으로 검색 되었지만, 실사 결과 해당 판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 것은 판본 정리자의 오류에 의한 것이므로 이 역시 제외하였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北京大學圖書館에 『太平御覽』(口6080, 日本安政2, 1855年江都喜多邨氏學訓堂木活字本)이 소장되어 있다. 동일 판본이 早稻田大學에도 소장(43-403)되어 있으므로 인쇄기술은 차후 일본 소장 근세활자의 인쇄기술 연구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표 1> 연구 대상 제외 판본 목록

서명	권-책수	소장처, 청구기호	판본사항	분석결과
鳳文會玉篇	12-6	臺圖, 802.28-1230-2	日本明治20(1887)年 銅印本	明治20(1887)年 신식연활자인본
圓機活法	8-2	東大, C14.2-(93)2226	日本明治14(1881)年 尙書堂銅活字本	明治14(1881)年尙 書堂동판인쇄본
李靜齋西行吟草	2-2	臺圖, 851.47-4003	日本排印本	日本신식연활자인본
佩文韻府	106-62	臺圖, 043.7-4421	日本明治30(1897)年 共益商社銅印本	明治30(1897)年共 益商社동판인쇄본
黃葉夕陽村舍詩	18-2	臺圖, 861.4-4412	日本文化間(1804-1817) 排印本	文化7(1810)年 신식연활자인본
黃葉夕陽村舍詩遺稿	7, 畵文4-1	臺圖, 861.4-4412	日本明治29(1896)年 排印本	明治29(1896)年 신식연활자인본

소장처: 臺圖=國立臺灣圖書館,²⁾ 東大=私立東海大學圖書館.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타이완 소장 일본 근세활자본의 개요와 이들 판본의 활자 제작기술·조판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 등을 포함하였다. 개요는 타이완의 소장 현황을 살피고, 간행 수단과 판식을 분석하였다. 기타 간행 지역·간행 주체·간행 시기 등은 일본의 근세활자판 연구에서 서술하기 위하여 생략하였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³⁾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인쇄 주체가 다양한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2) 이 도서관의 명칭은 원래 “臺灣省立臺北圖書館”으로 개관하여 “國立中央圖書館臺灣分館”으로 개칭하였다가, 오늘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명칭에 이르고 있다.

3)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2.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印本の 概要

2.1 日本 近世活字印本の 所藏 現況

문헌적 방법을 통하여 검색한 결과, 근세활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수량은 3처 11종인데, 이중 1종은 복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를 예시하면 <표 2>와 같다. 國立故宮博物院 圖書文獻館은 善本舊籍의 Data Base인 「國立故宮博物院善本古籍資料庫」를 구축하면서 판본사항을 책자 목록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정하였다.

<표 2>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印本 目錄

서명	권-책수	소장처, 청구기호	판본사항	분석결과
金匱要略正義	2-4	國圖, 5905	日本躋壽館活字本	江戸年間躋壽館木活字印本
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12, 附錄1-8	師大, D300-448	日本文化2(1805)年活字本	文化2(1805)年木活字印本
尚書古今文管窺	2-2	國圖, 227	日本嘉永元(1848)年活字本	嘉永元(1848)年木活字印本
傷寒論疏義	7, 首1-11	故宮, 故觀921-931	日本嘉永5(1852)年江都學訓堂聚珍本	嘉永5(1852)年江都學訓堂木活字印本
御藥院方	11-5	故宮, 故觀1395-1399	日本寬政10(1798)年精思堂活字本	寬政10(1798)年精思堂木活字印本
靈樞識	6-6	故宮, 故觀908-913	日本文久3(1863)年躋壽館活字本	文久3(1863)年躋壽館木活字印本
	6-12	故宮, 故觀3245-3256		
五藏論	1-1	故宮, 故觀14055	日本嘉永4(1851)年江戸喜多氏學訓堂活字本	嘉永4(1851)年江戸喜多氏學訓堂木活字印本
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5-5	國圖, 5889	日本活字本	享和3(1803)年-文化7(1810)年間木活字印本
龍川文集	30-15	國圖, 10627	日本嘉永3(1850)年如不及齋活字本	嘉永3(1850)年如不及齋木活字印本
壬癸集	1-1	國圖, 13488	日本京都聖華房木活字本	近世京都聖華房木活字印本
雜病廣要	45-45 ⁴⁾	故宮, 故觀2749-2778	日本江戸間躋壽館活字本 ⁵⁾	文久元(1861)年躋壽館木活字印本

소장처: 故宮=國立故宮博物院圖書文獻館, 國圖=國家圖書館,⁶⁾ 師大=國立師範大學圖書館.

2.2 日本 近世活字印本の 간행 수단

모든 판본이 목활자를 이용하였다.

2.3 日本 近世活字印本の 版式 상 特徵

실사자 11종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3.1 表紙 題簽 書名

제침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8종, 없는 경우가 1종(『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書影 2)), 미확인이 2종이다. 제침제는 목판으로 인출하되, 사주단변으로 인출한 경우가 5종(『傷寒論疏義』·『靈樞識』·『五藏論』·『壬癸集』(書影 6)·『雜病廣要』), 사주쌍변이 1종(『御藥院方』)이다. 목활자로 사주단변으로 인출한 경우도 2종(『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書影 4)·『龍川文集』(書影 5))이 있다. 『五藏論』과 『壬癸集』의 제침제는 小篆體이다.

2.3.2 匡廓 형식

사주단변이 8종으로 가장 많고, 사주쌍변이 2종(『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五藏論』), 좌우쌍변이 1종(『壬癸集』)이다.

2.3.3 界線 유무

계선이 있는 경우가 6종, 없는 경우가 5종(『金匱要略正義』(書影 1)·『傷寒論疏義』·『靈樞識』·『壬癸集』·『雜病廣要』)이다.

4) 30권 30책만 소장하고 있다.

5) 『國立故宮博物院普通舊籍目錄』에는 “日本躋壽館活字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6) 과거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이라 칭하였다.

2.3.4 行數

반엽에 10행의 경우가 8종으로 가장 많고, 9행이 2종(『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五藏論』), 11행이 1종(『雜病廣要』)이다.

2.3.5 字數

20자가 8종으로 가장 많고, 18·19·23자가 각각 1종씩(『壬癸集』·『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雜病廣要』)이다.

2.3.6 小註 형식

小註를 사용하지 않은 『龍川文集』과 『壬癸集』을 제외하면, 9종 모두 쌍행 형식이다.

2.3.7 版口 형식

화구가 8종이고, 백구 2종(『尙書古今文管窺』(書影 3)·『壬癸集』), 흑구 1종(『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이다. 躋壽館木活字印본인 『金匱要略正義』와 『雜病廣要』는 판심이 흑어미로 시작하는 특이한 경우다.

2.3.8 魚尾 형식

上下向黑單魚尾가 10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尙書古今文管窺』만이 上下內向黑雙魚尾이다.

2.3.9 기타 특징

계선을 포함하여 판심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완전일체식으로 된 판심을 사용한 경우가 8종, 계선을 조립한 부분일체식 판심이 1종(『五藏論』), 조립식 판심이 1종(『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이다. 『尙書古今文管窺』는 판심의 계선이 인출되지 않아서 판단이 불가능하나 조립식으로 짐작된다.

판심제는 본문과 같은 활자를 사용한 경우가 5종, 판심제보다 약간 작은 중자인 경우는 3종(『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御藥院方』·『壬癸集』), 소자를 사용한 경우는 1종(『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본문 활자보다 큰 특대자는 2종(『靈樞識』·『雜病廣要』)이다. 편명·권차·장차 등에 소자를 사용한 경우는 4종(『金匱要略正義』·『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龍川文集』·『雜病廣要』)이 있다.

목판을 병용하고 있는 경우는 『御藥院方』과 『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의 2종이 있다.

3.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製作技術

3.1 材質과 製作 方法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문자의 자양은 일치하지 않지만, 매우 유사하고 단정한 匠體⁷⁾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傷寒論疏義』·『御藥院方』·『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龍川文集』).

7) 문자 필획의 윤곽을 필서체처럼 곡선으로 조각하지 않고 직선으로 처리하여 조각의 능률을 높이고자 한 서체. 각자 장인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자양이 다소 또는 제법 차이가 나는 장체이지만, 단정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다. 역시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金匱要略正義』·『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尙書古今文管窺』·『靈樞識』·『雜病廣要』).

문자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보이는데, 활자의 동체는 같은 크기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문자를 활자의 문자면에 가득 차도록 조각한 경우와 문자 주위에 여백이 남도록 조각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조사 판본 중 유일한 필서체인데, 자양이 제법 많이 차이난다(『壬癸集』).

3.1.2 刀刻의 痕迹

도각의 흔적은 모든 판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필획의 날카로운 윤곽과 필획이 교차하는 곳 모두에서 역력한 경우가 있다(『金匱要略正義』·『尙書古今文管窺』·『傷寒論疏義』·『壬癸集』·『雜病廣要』).

도각의 흔적이 필획의 윤곽에서는 역력하지만,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아주 드물게 또는 간혹 보이거나(『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靈樞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御藥院方』·『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龍川文集』).

3.1.3 木理의 有無

거의 안 보일 만큼 미세한 목리가 세밀히 관찰하면 드물게 또는 간혹 몇 개 정도 보인다. 신각 활자로 보인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龍川文集』).

크고 작은 목리가 쉽게 보인다(『尙書古今文管窺』·『傷寒論疏義』·『御藥院方』·『壬癸集』·『雜病廣要』). 특히 목색이 연한 문자에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五藏論』).

목리가 역력하여 거의 대부분의 문자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필획은 굵지 않으나, 도각 흔적과 목리가 분명한 점으로 보아 조성 후 시간이 약간 지난 활자로 보인다

(「金匱要略正義」·「靈樞識」).

문자의 크기가 약간 큰 경우와 서체의 균형이 약간 어긋난 경우는 목색이 진한 점으로 보아 보각한 활자로 보인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이처럼 보각한 활자에서는 목리가 보이지 않는다(「靈樞識」).

목색이 한 문자의 필획에 따라 고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고른 경우를 관찰하면, 금속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목질이 단단함을 짐작할 수 있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3.2 熟練度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필서체가 아닌 匠體이지만, 문자의 자양이 유사하고 정성껏 조각하여 필획이 균정하다. 필서체가 아니어서 예술적 미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전형적 특징인 가로 획은 가늘고 세로 획은 굵은(橫瘦直粗) 장체자로서 단정미를 읽을 수 있다(「傷寒論疏義」·「御藥院方」·「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자양이 약간 차이하지만, 완전한 장체자의 특징을 잘 표현하여 그런대로 우수하고 단정한 모습이다(「金匱要略正義」·「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尙書古今文管窺」·「靈樞識」·「龍川文集」·「雜病廣要」).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펴보면,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나 윤곽에 모가 나는 등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다(「壬癸集」).

3.2.2 文字의 美感

전반적으로 장체로서의 서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필획의 굵기도 균정한 편이다. 그 중에서 서체의 균형·필획의 굵기·자양의 유사성·문자 크기의 균정도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경우가 있다. 필획의 조각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면

세심한 곳까지 필획을 만들기 위하여 정교하게 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색이 금속처럼 고른 분위기로 보아 목질이 단단한 것으로 보인다(『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자양은 유사하지만, 문자의 크기가 미세하게 크거나 작은 것이 드물게 보이거나(『金匱要略正義』·『傷寒論疏義』·『雜病廣要』), 필획의 굵기도 약간 고르지 못하면서 문자의 크기도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경우가 있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尚書古今文管窺』·『御藥院方』·『靈樞識』·『五藏論』·『龍川文集』). 안정감이 약간 떨어진다.

다소 사용하여 목리와 함께 필획이 미세하게 마모되어 굵어졌다(『靈樞識』). 아울러 보각한 문자가 약간 혼재하고 있다(『金匱要略正義』·『雜病廣要』). 자양이 제법 차이가 있고, 전체 분위기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으로 단정미가 제법 떨어진다. 대형 문자에 비하여 정교도가 떨어진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필서체의 균형을 약간씩 잃은 경우가 많고, 필획의 굵기도 다소 고르지 못하다. 문자의 크기가 차이ナ기도 한다. 안정감이 다소 떨어지면서 세련미도 제법 떨어진다(『壬癸集』).

3.3 기타

3.3.1 例外的인 活字

기울어진 문자의 높은 쪽에 동체가 찍힌 목적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방정한 동체에 필획을 만들기 위하여 산을 그다지 깊게 조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金匱要略正義』·『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龍川文集』·『雜病廣要』). 예: 『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권4 제11엽상 1-2의 “方”과 6-1의 “稅”.

문자 필획의 일부를 실수로 깎아버린 경우가 있다. 예: 『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권11 제25엽하 7-5의 “敏”.

목정과 문자 주위의 목색을 보면, 활자의 동체에 문자를 상하는 가득차도록

조각하였으나, 좌우는 여백이 있는 점에서 가득차게 조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龍川文集』).

3.3.2 木板의 並用

『御藥院方』과 『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의 2종이 있으나, 이 부분은 활자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평가를 생략한다.

3.4 綜合 評價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4종(『傷寒論疏義』·『御藥院方』·『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이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필서체와 달리 대부분 필획의 윤곽을 직선으로 조각하므로 조각술의 기술적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4.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組版技術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1.1 從行

대체로 가지런한데(『傷寒論疏義』·『御藥院方』·『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龍川文集』), 문자의 크기 차이 등으로 미세한 오차가 간혹 보이는 경우도 있다(『金匱要略正義』·『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尙書古今文管窺』·『靈樞識』·『雜病廣要』).

행 전체가 미세하게 활처럼 휜 경우도 있다(『壬癸集』).

4.1.2 橫列

오차가 거의 없이 가지런한 경우가 있다(『靈樞識』·『五藏論』·『龍川文集』). 가지런하지만, 미세하거나 약간의 오차가 보인다(『金匱要略正義』·『尙書古今文管窺』·『御藥院方』·『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壬癸集』·『雜病廣要』). 오차가 제법 보이기도 하고(『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소자에서 또는 대소자가 혼재할 경우에 오차가 약간 더 보이기도 한다(『傷寒論疏義』·『雜病廣要』).

4.2 字跡의 安置 角度

삐뚤어진 문자가 거의 없거나, 예외적으로 1~2자 보이는 것도 정도가 심하지 않다. 사방이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金匱要略正義』·『靈樞識』·『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龍川文集』). 소자에서도 거의 없다(『御藥院方』). 삐뚤어진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2~3자 정도 보인다. 역시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尙書古今文管窺』·『傷寒論疏義』·『壬癸集』). 소자는 제법 삐뚤어져 5~6자 정도 보인다(『尙書古今文管窺』·『傷寒論疏義』).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대체로 시계 방향으로 약간 틀어진 경우가 간혹 보인다(『雜病廣要』).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3.1 文字面の 水平

문자의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을 만큼 반듯하거나(『御藥院方』), 일부 필획이 연한 경우가 1~2자 정도(『金匱要略正義』·『靈樞識』·『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또는 2~3자 정도인데, 뒤로 갈수록 많아지면서 일부 인출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난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일부 연한 경우는 7~8자,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1~2자 정도가 있고(『壬癸集』), 뒤로 갈수록 많아지고 정도도 심해져서 4~5자 정도 보이기도 한다(『傷寒論疏義』).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모든 엽에서 적지 않게 보여서 대소자에서 모두 7~8자 정도 제법 보이는 경우가 있다(『雜病廣要』).

조판된 활자의 상태가 기울어진 듯 문자의 필획보다 활자 동체의 가장자리가 찌른 경우가 모든 엽에서 적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龍川文集』), 일부 필획이 안 보이는 문자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尙書古今文管窺』).

4.3.2 印出面의 水平

인출면으로부터 반영된 묵색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면, 정도의 차이에 따라 몇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묵색이 매우 연하거나 다소 진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자 간의 농담은 미세하게 진하거나 연하여 아주 약간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점에서 활자의 높이가 균일하고 사면이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 광곽과 계선은 드물게 부분적으로 인출되지 않은 곳이 있지만, 대체로 잘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밀착되어 있어서 목판본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이다(『金匱要略正義』·『靈樞識』·『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흠이라면 보각한 문자의 묵색이 다소 진하고, 드물게 연한 문자가 보인다(『靈樞識』).

문자 간의 농담은 엽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고르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연하거나 진한 것이 3~6자 정도로 인출면의 수평에 다소의 요철이 있다. 소자는 편차가 조금 더 크고, 뒤로 갈수록 농담 차이가 커지면서 많아진다. 그렇지만 사면이 방정하고 높이도 고른 활자로 보인다. 광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심이나 문자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간혹 인출되지 않은 곳이 보이고, 계선도 간혹 인출되지 않았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傷寒論疏義』·『雜病廣要』). 묵색 농담이 엽에 따라 문자별로 고르기도 하고 편차가 크기도 하여 숙련공과 초보자가 공동 작업한 듯하다(『唐丞相曲江張先生

文集』). 보각한 문자는 대체로 진하다. 연하게 인출된 문자 중에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문자가 섞여 있다(『雜病廣要』 서목 제1엽 판심의 “目”).

문자 간 묵색 농담의 차이가 진하거나 연한 엽에서 모두 제법 보인다. 문자가 의 안 보일만큼 연한 문자가 보이기도 하고, 필획의 반 이상 인출되지 않아서 거의 식별이 불가능하여 내용으로 인식하여야 하기도 하고, 진한 문자가 10여 자씩 보이면서 농담 차이도 커서 활자본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인출면의 높낮이가 고르지 못하고 기울어진 문자도 많아서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광곽 내선이나 계선의 일부가 인출되지 않기도 하였다(『尙書古今文管窺』·『御藥院方』·『五藏論』·『龍川文集』·『壬癸集』). 계선이 문자가 있는 곳에서는 거의 인출되지 않아서 인출된 것이 예외일 정도인 경우도 있다. 『尙書古今文管窺』의 권두제와 권말제 등 문자가 없는 부분 외에, 自序 제1엽 1~2행간, 권1 제5엽상 1~2행간, 제11엽상 8~9행간, 제16엽하 4~5행간, 제25엽하 6~7행간, 권하 제3엽상 7~8행간, 제16엽상 6~7행간 등에만 계선이 인출되었다. 판심의 “之”가 잘 보이지 않는 엽도 있다(『龍川文集』). 묵색의 농담 차이로 인하여 안정감이 떨어지고 조각술을 상쇄하고 있다.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네 꼭지점이 대체로 견고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缺口 현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御藥院方』·『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0.5~1mm 이내로 크지 않은 경우가 있다(『靈樞識』·『五藏論』).

1~2mm 이내의 경우(『金匱要略正義』·『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傷寒論疏義』·『龍川文集』·『壬癸集』·『雜病廣要』)와 2~5mm 정도의 경우가 있다(『尙書古今文管窺』).

광곽은 내선과 외선이 일체형인 것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모든 판본에서 조립식 광곽을 사용하고 있고, 식자 방법으로 조임식을 사용하

고 있다. 조임 방법은 일부 판본에 잡목 형태로 나타난 흔적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상하 변란을 고정하기 위하여 15~35mm의 상하에 고정용 버팀목을, 좌우 광곽을 고정하기 위하여 11~15mm 정도의 광곽 밖에 22mm 정도 폭의 고정용 버팀목을 사용하고 있다(『壬癸集』). 또한 하변을 조이기 위하여 4행 위치의 광곽 아래 2mm에 가로 세로 13×7mm의 썬기를, 좌변을 조이기 위하여 10자 위치의 3mm 좌측에 8×4mm의 썬기를 박기도 하였다(『傷寒論疏義』).

간행을 위하여 모두 몇 개의 인판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반부에서는 1개의 인판을 사용하였다. 권17~20의 광곽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2개의 인판을 교대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체로 2개의 인판을 사용하였고, 간혹 1개를 추가로 사용한 듯하다(『龍川文集』).

4.5 기타

4.5.1 界線 격자

空格에 목등이 찍힌 상태를 보면(목록 제3엽하 5-1) 계선과 활자 사이에 격자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御藥院方』).

4.5.2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발견하지 못하였다.

4.5.3 校正의 失手

오자나 순서가 바뀐 문자가 1~2곳 있기도 하고(『壬癸集』), 후인이 紅筆로 교정하였는데(嘉永 壬子, 1852년), 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3자 정도 보이기도 한다(『五藏論』).

활자가 없는 문자는 묵등으로 대체한 경우가 보이고, 교정에 신중하지 못하여 후대에 기입해 넣은 문자도 많다(『金匱要略正義』).

본문의 오자를 우측 행간에 극소자로 찍어서 교정하고 있다. 누락된 문자도 극소자로 찍어서 보완하고 있다. 서목 제10엽하 11-4와 5자 사이에 누락된 문자 “明”을 추가, 제11엽상 3-3의 “痘” 교정, 제15엽상 3-8과 9자 사이에 “元”을 추가하고 있다. 본문 권1 제1엽하 7-6과 7자 사이에 “氣”를 추가, 제2엽상 3-9의 “勤”, 9-12의 “頃”, 제3엽상 2-좌22와 23자 사이에 “諸”를 추가, 제10엽하 2-10의 “毒”, 제14엽상 4-8의 “開”, 제21엽상 2-3의 “係”, 제24엽상 5-17의 “監”, 제28엽하 5-18의 “順” 등 교정 문자가 권2 이하에서도 꾸준히 보인다. 판심의 권차와 장차에도 오자가 있다. 권1 제2엽에서 권차를 “二”로, 권26 제29엽에서 장차를 “二十”으로 오식하였다. 권26 제20엽의 판심과는 인판이 다르다. 그래도 교정이 완전하지 못한 듯 후인이 紅筆로 써넣은 부분도 보인다(『雜病廣要』).

4.6 綜合 評價

조판술이 매우 우수한 경우도 있지만(『靈樞識』·『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조각술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御藥院方』·『龍川文集』).

목색의 농담 차이로 인하여 다소 안정감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五藏論』), 인출면의 높낮이가 고르지 못하고 기울어진 활자가 많아서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엽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 목색 농담도 편차가 커서 한눈에 활자본임을 알 수 있다. 조각술을 상쇄하고 있다(『尙書古今文管窺』).

교정을 간과한 듯 오자가 많은 점이 흠이다(『金匱要略正義』·『五藏論』·『雜病廣要』).

조판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4종(『金匱要略正義』·『御藥院方』·『靈樞識』·『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이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5.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印出技術

5.1 墨色의 濃淡

5.1.1 全體의 墨色

전체적으로 묵색을 연하게 사용하되, 시종 고르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金匱要略正義』·『尙書古今文管窺』·『靈樞識』·『雜病廣要』).

진하거나 연한 엽이 교차하거나(『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묵색은 진한 편인데, 간혹 약간 연한 엽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傷寒論疏義』·『御藥院方』·『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龍川文集』·『壬癸集』).

5.1.2 葉 간의 濃淡差

묵집으로 인한 엽 간의 농담 차이는 거의 없기도 하고(『尙書古今文管窺』), 판면에 따라 약간 진하거나 연한 엽이 간혹 보이거나 정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가 있다. 묵색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金匱要略正義』·『靈樞識』·『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壬癸集』·『雜病廣要』).

진하거나 연한 엽이 교차하여 다소 또는 제법 오차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傷寒論疏義』·『龍川文集』). 연한 엽은 상당히 연하다(『御藥院方』·『五藏論』).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2.1 墨汁의 번짐

번진 엽, 부분 번짐, 번진 문자는 없고(『金匱要略正義』·『傷寒論疏義』·『靈

樞識」·「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雜病廣要」), 오히려 잘 안 보일만큼 여린 문자가 간혹 보인다(「金匱要略正義」·「雜病廣要」).

묵색이 진한 엽에서도 번진 정도는 별로 크지 않으면서 아주 드물게 보이거나(「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龍川文集」 권20 제30엽상), 약간의 번짐이 드물게 보이면서 계선이 번진 곳도 있다(「御藥院方」).

번진 엽이나 묵등 문자는 없으나, 드물게 필획 측면이 반영된 문자가 보인다(「尙書古今文管窺」). 필획 간이 다소 진하여 매워질 듯한 경우가 2~3자씩 보이면서, 반대로 착목이 불완전하여 다소 또는 제법 연한 문자가 10~20자씩 보인다(「壬癸集」).

5.2.2 墨汁의 쓸림

쓸림 현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金匱要略正義」), 간혹 몇 자씩 보이지만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尙書古今文管窺」·「靈樞識」·「五藏論」·「雜病廣要」).

묵색이 진한 엽에서 드물게 2~4자 정도 보이지만 정도는 심하지 않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많아진다(「傷寒論疏義」·「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묵색이 진한 문자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꾸준히 필획에 따라 문자에 따라 판면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연한 엽에서도 제법 보인다. 묵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서(「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권8 제5엽상 1-1의 “戰”) 쓸림의 정도가 제법 큰 경우도 있고, 필획 측면이 반영된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御藥院方」·「龍川文集」·「壬癸集」).

5.2.3 字跡의 깨짐

자적이 깨진 문자가 없거나(「金匱要略正義」·「傷寒論疏義」·「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壬癸集」), 자적이 깨지진 않았지만 깨진 것처럼 목

색이 너무 연하여 인출 후 일부 가필한 경우가 있다(『御藥院方』 권2 제9엽 하단부 2~3자 옆줄). 독서에 불편할 정도로 연한 문자가 적지 않은 경우도 있다(『靈樞識』).

묵색이 너무 연하여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았거나 깨진 듯이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인출 문제라기보다는 조판술의 결과로 보인다(『雜病廣要』). 뒤로 갈수록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五藏論』).

일부 자적이 인출되지 않아서 깨진 문자가 거의 모든 엽에서 보일 만큼 적지 않다(『龍川文集』).

5.3 雜痕과 雜墨

잡목의 흔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아주 드물게 미랑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尙書古今文管窺』·『御藥院方』·『靈樞識』·『五藏論』).

미랑 또는 소량의 雜墨이 간혹 보이는데(『金匱要略正義』·『傷寒論疏義』·『龍川文集』·『壬癸集』·『雜病廣要』), 주로 광곽 주변에 자주 나타나서 인출장의 습관이 인판에 책지를 얹을 때 부주의한 것을 짐작하게 한다. 잡목의 흔적으로 보아 계선 간의 폭은 16.5mm임을 알 수 있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후반부로 갈수록 잡목도 더 나타나고 서품도 떨어진다(『龍川文集』).

5.4 二重 印出

이중 인출의 현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金匱要略正義』·『尙書古今文管窺』·『五藏論』·『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龍川文集』·『雜病廣要』).

『傷寒論疏義』는 권4 제4엽상 1-11·12의 “者·病”이, 『御藥院方』은 권1 제3엽하에 5자와 제44엽 권말제의 3자 정도에서 이중 인출이 보인다.

3곳 정도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권2 제3엽상하, 권8 제7엽하, 제8엽상 · 『壬癸集』).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5.5.1 印出의 方向

책지의 후면을 살펴야 관찰이 가능한데, 분석을 할 수 없었다.

5.5.2 印出의 強度

문자의 주위에 동체의 윤곽이 찍힌 잡목이 간혹 있는 점으로 미루어 필획을 만들기 위하여 산을 그다지 깊게 조각하지 않기도 했지만, 인출도 제법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묵색이 강하게 찍히지 않았음에도 잡목이 있는 점으로 보아 힘껏 인출한 점보다는 산이 높지 않은 이유가 더 커 보인다(『金匱要略正義』).

묵즙을 진하게 사용하였는데, 간혹 광곽 모서리 부분이 연한 곳이 있고, 밀대로 밀지 않아서 연한 문자도 있다. 이는 일출장의 신중하지 못한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龍川文集』).

5.6 着墨의 均整度

전반적으로 연하거나 진한 묵색이 혼재하고 있으면서 착묵 상태도 균정하지 못하고 편차가 커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선 예외적으로 착묵 상태가 매우 균정하여 판면이 매우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

착묵 상태가 농담 차이, 쏠림,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균정하지 못하고 편차가 커 보인다(『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 『五藏論』 · 『壬癸集』 · 『雜病廣要』). 조판술의 미숙으로 인하여 묵색이 고르게 안정되지 못하고

서품이 우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尙書古今文管窺』). 뒤로 갈수록 판면의 농담 차이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傷寒論疏義』·『御藥院方』).

농담의 차이와 쏠림 등의 현상으로 균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쏠림·깨짐·연합 등이 동시에 관찰되는 엽이 많다. 반 목등이 된 경우도 있다. 예: 권4 제7엽상 6~9행의 “有·其·屬·黨·廣·然·獨”, 제7엽하 1~2행의 “無·尊” 등, 권2 제3엽하, 권3 제9엽하, 권5 제6엽하 등에서도 볼 수 있다(『龍川文集』).

5.7 綜合 評價

대체로 목색이 너무 연한 판본에서 부정적 요소가 시종일관 나타나고 있고(『金匱要略正義』·『靈樞識』), 인출술이 조판술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御藥院方』·『雜病廣要』).

인출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종(『王翰林集註皇帝八十一難經』)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6.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印刷技術

조각술과 조판술은 우수하나 인출술이 떨어지기도 하고(『靈樞識』), 조각술과 인출술은 우수하나 조판술이 미숙하기도 하고(『尙書古今文管窺』), 조각술은 우수하나 조판술과 인출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御藥院方』·『五藏論』·『雜病廣要』).

조판술은 우수하나, 인출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金匱要略正義』·『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龍川文集』).

이상을 종합하면 臺灣 所藏 日本 近世活字의 활자 인쇄 기술 수준은 중상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臺灣의 일본 근세활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수량은 3처 11종이다. 이들 근세활자본의 판식 상 특징은 주로 四周單邊, 有界 또는 無界, 10行20字, 小註雙行, 花口, 上下向黑單魚尾, 一切式 版心 등을 사용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모두 목활자이다. 이들의 製作技術은 대부분이 장체로서 필획의 윤곽을 직선으로 조각하므로 조각 기술의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단정한 편이다. 필서체 1종은 필의를 표현하고 있다. 보각한 경우도 있다. 문자의 미감은 다양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하다. 빼놓아진 문자와 농담의 차이는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정을 간과한 듯 오자가 많은 판본이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묵색을 연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의 차이가 다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없기도 하고 제법 보이는 경우가 있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중상급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1. 목록·해제·도록류

- 內閣文庫編, 『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錄(上・下)』,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 多治比郁夫編, “杏雨書屋所藏古活字本目錄,” 『杏雨』第4號(2001. 4), 230-278.
- 臺灣省立臺北圖書館編, 『臺灣省立臺北圖書館普通本線裝書目』, 臺北: 臺灣省立

臺北圖書館, 1970.

臺灣省立臺北圖書館編.「臺灣省立臺北圖書館善本書目」. 臺北: 臺灣省立臺北圖書館, 民57(1968).

臺灣省立臺北圖書館編.「臺灣省立臺北圖書館善本書目」. 臺北: 臺灣省立臺北圖書館, 民61(1972).

大阪府立圖書館編.「大阪府立圖書館貴重圖書目錄」. 大阪: 大阪府立圖書館, 1929.

大阪府立圖書館編.「大阪府立圖書館藏漢籍目錄: 四部之部」. 大阪: 大阪府立圖書館, 1966.

大阪府立圖書館編.「大阪府立圖書館特別集書目錄: 近世活字本目錄」. 大阪: 清文堂, 1973.

武田科學振興財團編.「杏雨書屋藏書目錄」.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82.

武田科學振興財團編.「杏雨書屋第34回杏雨書屋特別展示會 - 活字版の醫書・本草書 -」.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2000.

北京大學圖書館編. 北京大學圖書館善本室閱覽目錄. 北京: 北京大學圖書館.

北京大學圖書館編. 北京大學圖書館藏古籍善本書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私立東海大學圖書館編.「私立東海大學普通本書目」. 臺中: 東海大學圖書館, 民60(1971).

私立東海大學編.「私立東海大學善本書目」. 臺中: 東海大學, 民57(1968).

田淵正雄編. “近世木活字版漢籍分類目錄.”『ビブリア』第81號(1983. 10). 137-146.

早田一郎. “天理圖書館藏木活字版書目稿二.”『ビブリア』第64號(1976. 10). 82-101.

朝倉治彦, 田口榮一. “(日本)國立國會圖書館所藏木活字本目錄稿.”『參考書誌研究』第10號(1974. 11). 11-18.

朝倉治彦. “(日本)國立國會圖書館所藏木活字本目錄稿(續).”『參考書誌研究』第32號(1986. 10). 36-41.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國立故宮博物院善本古籍資料庫」.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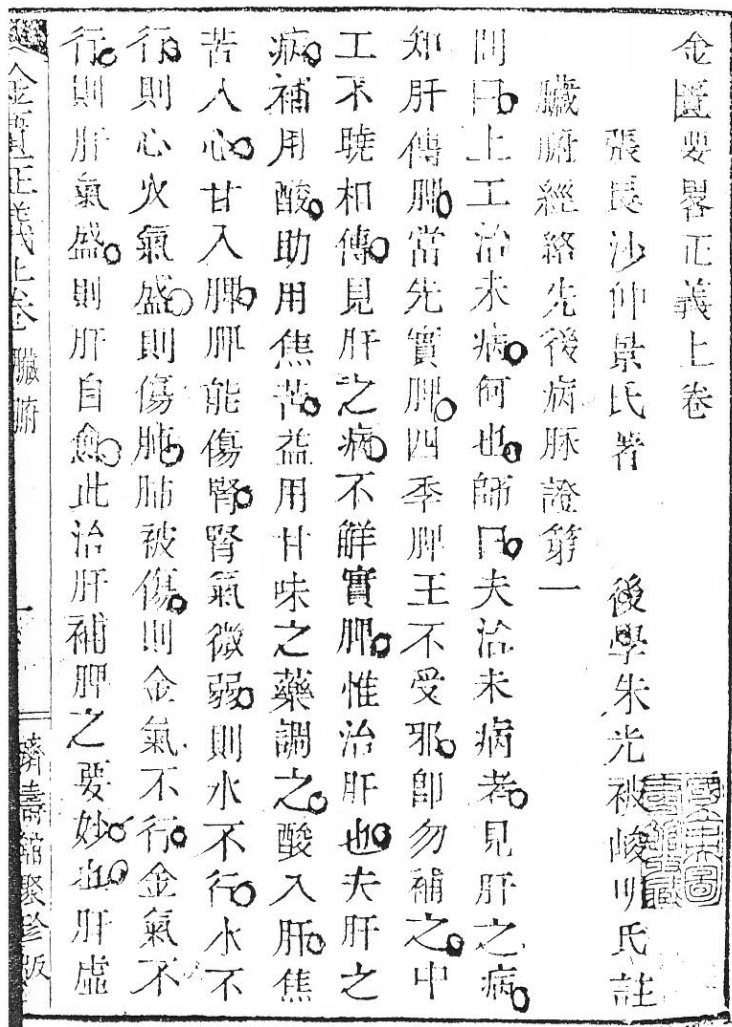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國立故宮博物院普通舊籍目錄」.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民59(1970).

-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國立故宮博物院善本舊籍總目』.臺北:國立故宮博物院, 民72(1983).
-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編輯.『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臺北:國立故宮博物院, 民57(1968).
- (中華民國)國立臺灣大學圖書館編輯.『國立臺灣大學圖書館增訂善本書目』.臺北:國立臺灣大學圖書館, 2011.
- (中華民國)國立臺灣大學圖書館編輯.『國立臺灣大學善本書目』.臺北:國立臺灣大學, 民57(1968).
- (中華民國)國立臺灣師範大學編.『國立臺灣師範大學善本書目』.臺北:國立臺灣師範大學, 民57(1968).
- (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特藏組編輯.『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增訂二版)』.臺北:國立中央圖書館, 民75(1986).
- (中華民國)國立中央圖書館編.『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增訂本)』.臺北:國立中央圖書館, 民56(1967).
- 杏雨書屋編.『新修恭仁山莊善本書影』.大阪:武田科學振興財團, 1985.
- 杏雨書屋編.『杏雨書屋圖錄』.大阪:武田科學振興財團, 1998.

2. 저술·논문류

- 多治比郁夫.“紀州書肆聚星堂の活字本.”『ビブリア』第81號(1983. 10). 130-136.
- 多治比郁夫.“大阪の木活字本.”『大阪府立圖書館紀要』第10號(1974. 3). 93-106.
- 岸本眞實.“近世木活字版概觀.”『ビブリア』第87號(1986. 10). 72-94.
- 早田一郎編.“近世木活字版研究資料集.”『ビブリア』第81號(1983. 10). 147-155.
- 曹炯鎮.“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書誌學研究』第25輯(2003. 6). 369-406.
- 川瀨一馬.『增補古活字版の研究』.東京:共立社, 1967.

[부록] 書影⁸⁾



<書影 1> 「金匱要略正義」.

江戸年間躋壽館木活字印本(16.9 × 11.6) (國圖, 5905)

8) 서영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中華民國 國家圖書館・國立師範大學圖書館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卷之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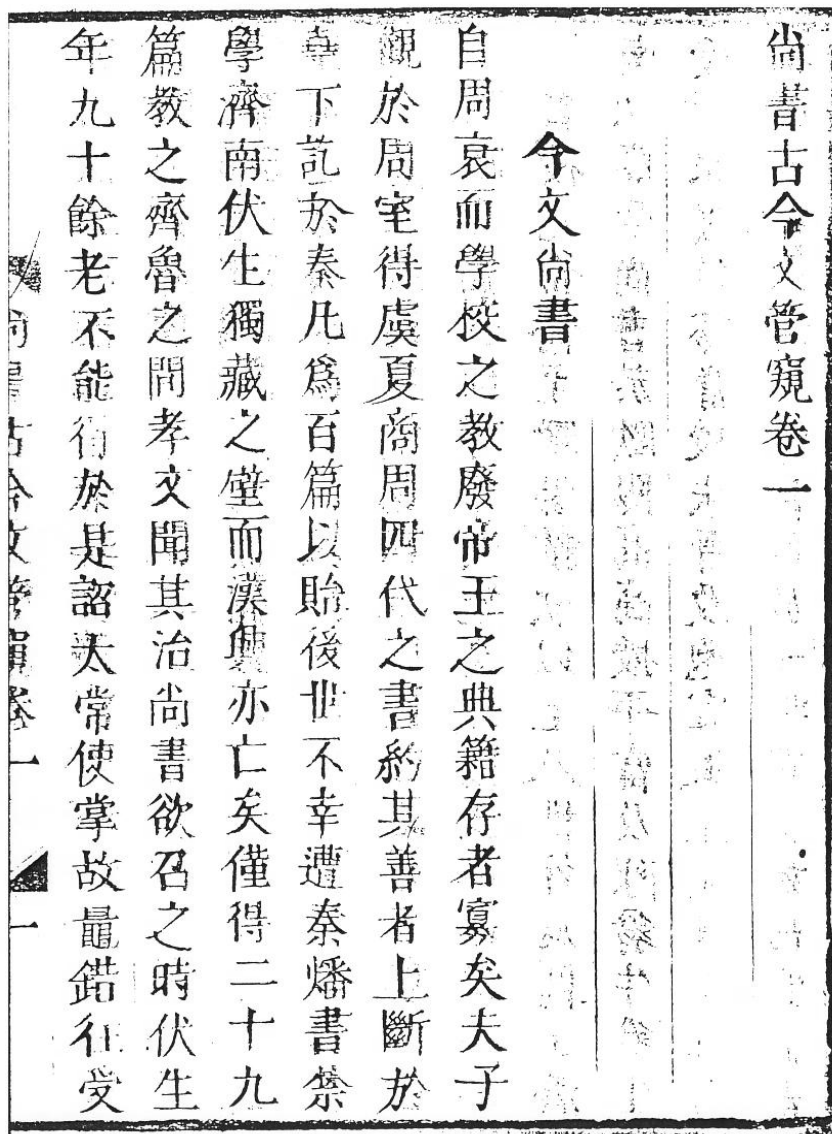
頌贊賦

龍池聖德頌并序

臣聞昔者玄德升聞皇天眷命元聖有作上帝何
言必見意於休徵不忘象於幽贊惟茲降鑒若曰
專精道周萬物者其神充功濟生人者其祥大粵
若古始肇有君臣巢燧之前寂寞無紀書契而後
煥炳可觀若乃鬼神睢盱品彙紛錯性命未正吉
凶不定而太昊氏將通其德則河爲之出圖人食

<書影 2> 「唐丞相曲江張先生文集」.

文化2(1805)年木活字印本(22.09 × 14.43) (師大, D300-448)



<書影 3> 「尚書古今文管窺」。

嘉永元(1848)年木活字印本(18.0×12.8)(國圖, 227)

王翰林集註黃帝八十一難經卷之一

盧國秦越人撰

呂廣

丁德用楊玄操

虞庶

楊康侯

註解

王九思王鼎象石友諒

王惟一

校正附音釋

○經脉診候第一

凡二十四首

一難曰十二經皆有動脉

呂曰是手足經十二脉也○丁曰十二經皆有動

脉者是人兩手足各有三陰三陽之經也以應天

地各有三陰三陽之氣也所謂天地三陰三陽各

龍川文集卷之一

書疏

上孝宗皇帝第一書

臣竊惟中國天地之正氣也天命之所鍾也人心之所會也衣冠禮樂之所萃也百代帝王之所以相承也豈天地之外夷狄邪氣之所可奸哉不幸而奸之至於爭中國衣冠禮樂而寓之偏方雖天命人心猶有所繫然豈以是爲可久安而無事也使其君臣上下苟一朝之安而息心於一隅凡其志慮之經營一切置中國於度外如元氣偏注一肢其他肢體往往

<書影 5> 「龍川文集」.

嘉永3(1850)年如不及齋木活字印本(18.5 × 13.9) (國圖, 10627)

壬癸集

頤和園詞

海甯 王 國維

漢家七葉鍾陽九
頤洞風埃昏九有
南國潢池正弄兵
北沽門戶仍飛牡
倉皇萬乘向金微
一去宮車不復歸
提挈嗣皇綏舊服
萬幾從此出宮闈
東朝淵塞曾無匹
西宮才略稱殊絕
內殿頻聞久論思
外家頗惜閒恩澤
六王輔政最稱賢
諸將專征捷奏先
迅掃欃槍回日月
八荒重睹中興年
聯翩方召升朝右
北門獨付元臣手

<書影 6> 「壬癸集」.

近世京都聖華房木活字印本(19.05 × 14.02) (國圖, 13488)

